

since 1986

SUNBO FAMILY

VISION 2015 | 해양 및 육상모듈 전문 초우량 상장기업

2014년 12월 15일

vol. 131

World Best
SUNBO FAMILY

선보공업(주) 선보유니텍(주) 선보하이텍(주)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 261. 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17-2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2014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OFFSHORE KOREA 2014) 참가 우리 회사의 미래 비전과 저력 확인한 자리



우리 회사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되는 '2014 국제해양플랜트전시회(OFFSHORE KOREA 2014)'에 참가했다. 격년제로 열리는 전시회는 부산시와 산업통산자원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 협동조합, 벡스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코트라, 경연전람, KIMEX 그룹 등 6개 기관이 공동 주관한다. 올해는 31개국 502개사가 참가하고 벡스코 본관 전시장 1, 2, 3홀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유수의 조선·해양 관련 기업들이 해양 플랜트 구조물과 장비, 기자재, 엔지니어링 등의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였다.

우리 회사가 준비한 모형 아이템은 총 4가지로 청정 연료로 각광을 받고 있는 LNG 연료 공급 장치인 LNG Fuel Gas Supply Package, 해양오염방지 설비로써 공정수처리설비인 Produced Water Treatment Package, 헬리콥터 주유설비인 Heli-refueling Package 및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인 Ballast Water Treatment Package이다. Heli-refueling Package는 현재 개발완료된 품목이고 나머지 3개 아이템은 개발 막바지 단계로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템들이다.

전시 첫째 날인 12일에는 서병수 부산시장을 비롯한 귀빈들이 우리 회사 부스를 방문했다.

우리 회사 대표로 진병석 전무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진병석 전무는 조선·해양 산업의 환경변화에 맞춰 기술자립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 개발 해온 우리의 미래 기술들을 소개했다. 4가지 제품 중 특히 주목받은 제품은 LNG 연료 공급 장치와 오존을 통해 미생물을 처리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이다. LNG 연료 공급 장치는 대우조선해양이 시스템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고 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으며 우리 회사만이 유일하게 제작 관련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는 마이크로 버블이라는 기술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마이크로 버블은 기존의 오존 가스를 더욱 잘게 나눠서 분사해 오존의 주입량은 적지만 살균력이 우수하다. 또한 간편한 자동화시스템을 적용해 조작성이 편리하고 필터 등 외부 장비설치가 필요하지 않아 공간 확보에 유리해 바이어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무엇보다 기존 처리장치보다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선박평형수처리설비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기존 선주 및 조선소와의 지속적인 신뢰 구축을 통한 마케팅 유지의 효과와 함께 변화하는 조선·해양 산업에 맞춰 연구 개발한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면서 우리 회사의 저력을 확인시켜주고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박재용 3공장 생산팀장, 부산울산중소기업청으로부터 모범 근로상 수여



지난 11월 25일, 부산울산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우리 회사를 방문해 모범 근로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리 회사 대표로는 박재용 팀장이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박재용 팀장은 우리 회사의 가족이 된지 어느덧

15년이 되었다. 현재는 3공장 생산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평소 산업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근면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은 타의 모범이 되는 것은 물론 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박재용 팀장의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했다. 이번 모범 근로상 표창은 임직원들은 물론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자리가 되었다.

최금식 대표이사,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릴레이 참여



지난 12월 1일 최금식 대표이사는 국제신문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 진행하는 제8회 산타원정대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릴레이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서 이경훈 사하구청장의 산타 지목을 받아 기부 릴레이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초록우산 산타원정대는 지난 10월부터 시작되어

부산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에게 희망의 크리스마스를 선물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후원 행사이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꿈은 꼭 현실로 성취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희망 물결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다음 주자 산타로 삼양금속공업(주) 서진민 대표이사와 우리 회사 최희승 차장을 지목했다.

선보가족, '사랑의 연탄'으로 한파 녹이는 온정 전달



한겨울 추위가 불어 닥친 11월 29일 오후, 부산 감천동의 한 골목에 '선보공업'이 적힌 조끼를 입은 선보가족들이 촘촘히 줄을 서서 연탄을 한 장씩 옆으로 건네고 있었다. 다른 조에서는 지게를 지고 좁은 골목길을 오르며 연탄을 배달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를 땐 가쁜 숨과 함께 새하얀 입김이 새어 나왔다. 그것은 이웃의 한숨과 추위를 날려 보내는 따뜻한 미소이기도 했다.

최동배 이사과 이청수 이사를 필두로 2개 조로 나뉜 50여 명의 선보가족들은 이날 홀로 사는 노인 가구, 저소득 가구 등 어려운 이웃에 연탄 1만장을 지원하면서, 그중 1,700장을 직접 배달했다.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는 선보인의 가족들까지 참여하여 고사리 손으로 연탄을 배달하였다. 남 녀노소를 떠난 '참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훈훈한 정이 오가는 시간이었다.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에 참가한 직원들은 "어렵게 사시는 소외된 이웃에 연탄을 직접 배달해보니 많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우리 주변에 소외받는 사람 없이 모두 따뜻한 겨울을 지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활동 차원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진행한 연탄 배달 봉사활동은 까만 연탄에 불꽃이 타오르면 올 겨울 추위도 무난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훈훈함을 전한 행사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RUN SUNBO RUN 회사소식

ERP 및 원가개선을 위한 TFT 출범



지난 11월 24일 사업기획부의 박현철 상무를 필두로 영업, 전산, 생산, 설계, 재무인사, 자재조달 등 각 부서별 ERP 및 원가담당 직원 총 12명으로 구성된 'ERP 및 원가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이 발족됐다.

이번에 꾸려진 태스크포스팀은 부서 간 소통을 통한 ERP 개선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ERP 개선을 통한 원가 분석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주 2회 본사의 의전실에서 진행되는 정기회의에서는 각 부서의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한다. 이 회의의 결과에 따라 즉시 개선해야 될 사항은 즉시 개선조치하고,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부서별 개별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활동하게 되는 태스크포스팀은 추후 진행사항 및 업무 효율 개선도에 따라 팀의 유지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태스크포스팀에 대해 "태스크포스팀이 어려운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은 물론, 부서 간 소통을 통해 원가절감 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12월 말까지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한다"며 격려했다.

RUN SUNBO RUN 회사교육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진행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자기계발과 직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 사하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진행했다. 교육은 11월 12일부터 12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오후 4시~6시)마다 본사 관리직을 대상으로 20명씩 선착순 신청을 받아 진행되었고, 총 5회차로 마무리되었다.

본사 옥상 대교육장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회차별로 직무 및 개인역량 강화, 생활교양, 인문예술 등 각기 다른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듣고 싶은 강좌를 선택해 들을 수 있어서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수요일은 가정의 날이라 오후 5시 퇴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을 향한 선보인들의 열의로 높은 집중도와 참여도를 보였다. 매주 수요일마다 본사 옥상 대교육장에는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으며 직원들은 쉽고 재미있는 외부강사의 강의에 집중하며 스트레스도 날렸다.

'기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교육에 참여했던 총 100여 명의 직원들은 후기를 통해 "평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던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서 팀워크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유익한 교육 주제로 차후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소감을 남겼다.

우리 회사의 역사가 시작된 곳, 다대1공장을 가다 - 공장장 김태호 부장



다대1공장은 1997년, 총 2,500평의 대지를 매입하여 Purifier Room 유닛 제품 생산을 시작으로 공장을 가동했다. 3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다대1공장에는 생산직원만 총 80여 명, 설계팀 인원도 70여 명에 이른다. 재무, 구매, 영업, 총무 등 우리 회사의 핵심부서가 모두 이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조선 업계 최초 '유닛(Unit)화'가 시작되다.

다대1공장의 역사는 우리 회사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사 설립 당시 우리 회사는 선박의 기관설비 의장품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닛(Unit)화'했다. 메인 엔진과 이와 연결된 수많은 장비들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확히 연결하고 조립하는 데 걸리는 공정기간을 단축하게 것이다. 우리 회사의 Purifier Room 유닛은 국내 조선업계 최초의 유닛 형태 생산이라는 점과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지금도 우리 회사의 Purifier Room 유닛 생산 기술력은 국내에서 독보적이라 할 수 있으며, 다대1공장에서 모든 물량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다대1공장에서는 Purifier Room 유닛 외에도 크고 작은 200종 가량의 품목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품의 양은 매달 평균 선박 열여섯 척에 납품하는 수준의 물량이라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상선 물량과 비교하면 도장이 까다롭고 검사 횟수가 많은 해양선 물량이 늘어나면서 실제 공정 가능일이 줄어들었다. 줄어든 작업 기간에 맞춰 납품을 완료하기 위해 다대1공장 직원들은 '불철주야'로 근무하며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기준'이 되다.

다대1공장은 본사인 만큼 다른 사업장의 '기준'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사내에 새로운 시스템이나 제도를 도입할 때는 항상 다대1공장에서 테스트(Testing)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을 거친 후 회사 전체에 시행하고 있다.

현재는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 라인QC 작업을 시범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라인QC는 실제 선주검사 전에 현장에서 자체검사를 하는 작업으로, 문제점을 현장에서 즉시 수정해 불량률을 낮추는 과정이다. 다대1공장에서는 6개월 정도 시행중에 있으며, 시스템이 안정되면 다른 공장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다. 자체적인 라인QC 시스템은 회사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대1공장은 직원 교육에 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현장에서도 주기적인 재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매주 진행되는 품질교육과 잘못된 작업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교육 등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다대1공장은 숙련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신입 직원 교육에도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함께해온 시간만큼 단단해지다.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동안 더러 난관도 있었지만 다대1공장 직원들은 오랜 세월 호흡을 맞춘 덕분에 함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실제로 근속연수가 14-15년이 된 직원들이 많고 전체 이직률도 낮은 편이다.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태호 부장은 힘든 고비마다 주인의식으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다대1공장의 직원들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김태호 부장은 "항상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예전에 비해 공정 자동화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공장을 돌리는 것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라며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다대1공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언제나 서로를 존중하며 호흡을 맞춰온 다대1공장의 직원들을 만나며 우리 회사의 힘찬 미래를 읽을 수 있었다.

SUNBO NEWS 선보뉴스

제 16회 부산마라톤대회 참여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지난 11월 9일 실시된 '제16회 부산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부산마라톤 대회'는 국제신문에서 주최하고, 부산육상경기연맹, 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 국제마라톤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우리 회사와 가까운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개최되어 임직원들이 매년 빠짐없이 참가하고 있다. 대회는 풀코스, 하프코스, 10km 코스 등 세 부문을 나누어 열렸고 총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우리 회사는 임직원과 가족을 포함한 70여 명이 참가해 모두 10km 코스를 완주했다.

올해는 특히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가족들이 많이 참석해 시원한 바닷바람을 함께 맞으며 달렸다. 우리 회사는 최다 참가상 2등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으며, 대회가 끝나고 부스에서 임직원과 가족들이 모두 모여 준비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14 DA-LINC FAIR 개막식 참석



지난 11월 20일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2014 DA-LINC FAIR 개막식에 우리 회사 최금식 대표이사가 초대받아 참석했다. 2014 DA-LINC FAIR는 사하구기업발전협의회와 사하구청, 동아대학교 LINC사업단 협약

의 일환으로 LINC사업단 성과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사업 성과확산을 독려하고자 하는 자리였다.

최금식 대표이사는 개막식 축사를 통해 "젊은 대학인들이 우리 지역의 기업에도 관심을 가져 함께 상생발전 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LINC사업의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소개하고, 우수 성과사례 전시 등 사업단 성과 발표 시간을 가졌다. 개막식 이후에는 동아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채용박람회에 우리 회사를 포함한 부산-경남지역의 30여 우수중견기업들이 참가해 대학생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했다.

RUN SUNBO RUN 생생 현장의 소리



다대1공장 | 김은식 계장

「 더 완벽하고 깨끗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제품이 품질적인 면에서 도면대로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코멘트를 현장에 지시합니다. 이후 코멘트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내부적으로 마지막 컨펌을 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작업이 되면 그만큼 고객사의 품질 검사에서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품질보증부서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엇인가요?

본사 품질보증부서는 모두 13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부서 회식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사와의 검사 및 미팅이 진행되기 때문에 잠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협력하고 있습니다.

Q. 품질보증부서의 동료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항상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 현장 근무가 많은데, 추운 겨울이니 움츠러들지 말고 항상 안전을 생각하면서 무엇이든 잘해내길 바랍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12년 8월에 입사했고, 현재 품질보증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Q. 품질보증부서는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수주 받은 작업이 완료된 후 도면이나

RUN SUNBO RUN 칭찬 릴레이



다대2공장 | 한승목 계장

「 모든 것은 저희 팀원들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

적응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었나요?

두바이에서 하던 업무와 비슷해서 적응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조립2반 반원들도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장기봉 과장님께서 절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Q. 칭찬 릴레이 주자로 선정되신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은 저희 팀원들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의 도움으로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적응이 빨랐던 만큼 더 열심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기에 이렇게 칭찬 릴레이 주자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Q. 알아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항상 공사기간이 중요합니다. 때론 공사기간도 급하고 일도 많은 상황이 이어지기도 하는데, 조립2반이 철야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제품을 기간 내에 완성시켰을 때가 가장 보람 있습니다.

Q. 내년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팀원들이 다른 걱정 없이 일단 열심히 하면 되는 현장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더불어 조립2반의 끈끈한 우정도 더 돈독해지길 바랍니다.

Q. 다음 칭찬 주자를 선정해주세요.

자재지원팀에 전철민 팀장을 추천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팀원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Q. 선보가족이 되신지 얼마나 되었나요?

올해 2월에 입사했습니다. 선보공업에 입사하기 전에는 두바이에서 5년간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선보공업에서 특수호선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Q.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에

생일 축하합니다

다대공장

- 다대1공장 윤기동 (12.03) 이태진 (12.06)
- 고명식 (12.07) 전병규 (12.08)
- 최순찬 (12.08) 정차균 (12.11)
- 편재용 (12.13) 김성은 (12.15)
- 안병관 (12.19) 김규오 (12.23)
- 김대관 (12.26) 강현욱 (12.27)
- 신승훈 (12.28) 정형규 (12.29)
- 문중현 (10.23) 최동배 (11.02)
- 김기주 (11.14) 강우구 (11.22)

다대2공장 박대성 (12.25)

다대3공장 김슬옹 (12.09) 채규만 (12.15)

구평공장

- 구평1공장 박상철 (10.19)
- 구평2공장 구성민 (12.05) 김철환 (12.15)
- 조남석 (12.15) 이성철 (12.18)
- 윤치호 (12.25) 변정희 (12.25)
- 송정호 (12.27) 허만수 (12.31)

영도공장

- 영도1공장 성창훈 (12.10) 김태현 (12.28)
- 장효준 (12.28)



입사 기념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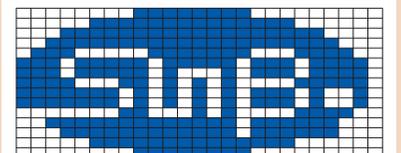
다대공장

- 다대1공장 조영록 (12.01) 성기갑 (12.01)
- 방승환 (12.02) 문해기 (12.05)
- 장상권 (12.16) 최진희 (12.16)
- 박찬수 (12.18) 황세연 (12.20)

구평공장

- 구평1공장 김희철 (12.09) 전동혁 (12.23)
- 서경일 (12.30)
- 구평2공장 방승환 (12.04)

지난 호 피크로스 정답



다른 그림 찾기 A와 B를 비교해 서로 다른 부분 5곳을 찾아보세요.

